**대림 제1주일(2018년 12월 2일) 강론**

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

인생을 크게 네 가지 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산타 할아버지를 믿는 단계,
        두 번째 단계, 산타 할아버지를 믿지 않는 단계,
        세 번째 단계, 산타 할아버지 흉내를 내는 단계,
        마지막 네 번째 단계, 산타 할아버지와 그 모습이 닮아가는 단계...

드디어 올해도 어김없이 대림시기가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 전례는 오늘로 2019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올 2018년 달력도 이제 마지막 한 장 딸랑 남아 있습니다. 늘 느끼지만 세월 정말 빠릅니다. 세월이 빠르다 못해 그냥 날라갑니다. ‘훅’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아쉽게도 이 빠른 세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속절없이 흘러갑니다.

해마다 오는 대림절, 해마다 맞이하는 성탄, 연말, 올해는 뭔가 좀 다르게 보내고 싶지 않으신가요? 늘 올해는 좀 다르게 보내자고 하지만, 사실 별로 특별한 것도 없고, 색다를것도 없습니다.

몇가지 제안을 좀 드리면, 다른 것 보다도, 올 대림절은 그냥 조금 더 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더 기쁘고 행복하게, 그리고 조금 더 마음의 평화를 찾는 시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연말, 성탄, 그리고 새해, 여기저기 바쁘고 분주하고, 시끄럽고, 그리고 정신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기 일쑤입니다.

사실, 대림절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고요한 시기입니다. ‘대림’이 갖는 본래 의미가 ‘고요’와 ‘기다림,’ 그리고 ‘깨어있는 시간’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어둔 밤에 새벽이 오길 깨어 기다리는 의미죠. 새벽이 오기 전, 참 고요하고 조용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깨어서 조용히 기도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뭘 어떻게 기도하냐구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성경을 읽어도 좋고, 묵주기도를 해도 좋습니다. 새벽의 그 기도는 아침이 밝을 때 기쁨과 행복으로 하루를 선사할 것입니다. 기도는 기쁨과 행복이 함께 와야 참된 기도입니다. 그리고 행동이 뒷받침 될때 진정한 기도가 됩니다. 기도만 죽어라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참된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맨날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만을 바라고 기도하니까, 하느님이 내 기도 하나도 안들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기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옆 집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이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 이웃 사람이 지금 배고파 굶어 죽어 가고 있는 데 좀 도와주세요.’ 응답이 어떻게 오는 줄 아십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기도하는 사람의 뺨을 힘껏 때립니다. “야, 이놈아! 너 집에 쌀 남은 거 있잖아! 얼른 밥 해 가지고 먹여!!”

또, 이웃에 사는 사람이 병원에 갈 돈이 없어 죽어갑니다. 또 열심히 기도 합니다. ‘저 불쌍한 사람,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번에도 천사가 나타나서 뺨을 힘껏 때립니다. “빨리 저 사람 들쳐 업고 응급실로 가. 나는 너를 통해서 일을 하고 싶은데, 왜 꼼짝 안하고 기도만 하는 거냐?”

기도는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말로만 그럴싸하게 하는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면서, 마음 속에 보기 싫고 미운 사람이 가득들어 있으면, 그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겠습니까! 올 대림 기간에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진솔한 기도를 좀 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혹시 그동안 살아오면서 서로 오해하고 마음의 벽이나 서로 상처를 갖고 살았던 사람이 있었다면, 이 대림 기간에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세월이 무지 빠르고 올해도 얼마 안 남았고, 내년도 세월 무지 빠르게 지나갈 것이고, 이러다 보면 우리 인생 금방 지나가 버릴텐데, 미움과 상처만 가지고 살다가 죽으면 아쉽고 후회스럽지 않겠습니까?

서로 축복해주고 도와주면서 함께 잘 살기보다는, 서로 망하기만을 바라면서 살아갈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도시에 경쟁 관계에 있는 장사꾼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가게는 서로 마주 보고 있었어요. 이들은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 밤에 잠들 때까지, 아니 밤에 잠도 안자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망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상대방 보다 내가 더 잘 살까’ 하는 데만 신경을 썼습니다. 보다 보다 못해서, 어느날 하느님께서 천사를 한쪽 상인에게 보내십니다. 두 사람을 화해 시키려고 천사는 이런 제한을 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큰 선물을 내릴 것입니다. 그대가 돈을 원하면 돈을, 건강을 원하면 건강을, 그리고 자녀를 원하면 자녀를 줄 것이오. 단, 조건이 하나 있소.”

천사는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그대가 무엇을 원하든 당신 경쟁자는 그 두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대가 돈 10,000불을 원하면, 그 사람은 20,000불을 얻게 될 것이오. 그러니 이제는 화해하고 함께 잘 살도록 하시오. 하느님은 이런 방법으로 당신들을 화해시키려는 것입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그 상인은 한 참 생각하다가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든지 다 그렇게 이루어 진다는 거죠? 그리고 저 사람은 그 두배를 받고요?” 천사가 그렇다고 하자 한참을 생각하더니, 그 상인은 크게 한숨을 쉬고는 결심한 듯 말합니다. “그럼, 제 한 쪽 눈을 멀게 해 주세요.” (‘상처와 용서’ 중에서, 송봉모 지음)

용서를 하고 서로 화해를 한다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도 하느님은 서로 화해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잘 났기 때문에 서로 허물을 감싸주고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악한 줄 모르고 남 욕하고, 내가 추한 줄 모르고 남 비난합니다. 그리고 내가 치졸한 줄 모르고 남 비웃습니다. 남 손가락질 하고 욕하는 사람, 결국 보면, 별 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가장 큰 일이 바로 용서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러잖아요. “저 사람들은 자신이 무슨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우리도 그러면 됩니다. “저 형제 자매가 지금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니까,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와 화해... 인생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싫은 사람, 보기 싫은 사람 때문에 속 끓지 마시고 말입니다.

대림 기간은 참으로 아름다운 시기입니다. 일 년중 가장 감동적인 시기입니다. 온 세상이 그 감동을 함께 나눕니다. 해야할 일도 많고, 챙겨야 할 것도 많은 바쁜 시기이지만, 잠시 하는 일을 멈추시고 ‘대림’의 참된 의미를 마음에 한번 새겨보았으면 합니다.

대림과 성탄은 우리 모두에게 치유의 시간, 은총의 시간입니다. 하느님과 인간이 만나는 가장 소중하고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소중한 만남의 이야기, 그리고 사랑 이야기, 화해의 이야기가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성탄은 단순이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의 예수님 탄생을 경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고 우리 삶 한가운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일입니다. 너무 바쁘게만 지내다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모른채 그냥 지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깨어 있어라”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 의미없이 보내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고, 더 늦기 전에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래서 기쁨과 행복을 함께 느껴보라는 것입니다. 잠들어 있다보면, 기쁨도 행복도 다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깨어 나십시오. 하느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깨어 나십시오.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깨어 나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내려질 은총과 축복을 놓치지 마십시오.

구세주가 곧 오십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 가운데로 오시는 중입니다. 그 분을 잘 맞이할 수 있게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습니다.